

수입개방 막아내는
우리는
자주여성 민주남성



일시: 3월 28일~30일

어디서: 대강당, 소운동장, 야공

누가: 총여학생회, 단대여학생회

여는시

차이에 대한 이해 없이
타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없으며
그 사람에게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그의 경험을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없으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아픔을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사업이야말로
자기자신을 가다듬을 수 있는 최고의 교실이다
인간을 사랑으로 만난다는 것은
제 피를 쏟아붓는 작업이다.
따라서
사랑은 투쟁이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생활터,
바로 대동학교에서
우리,
참사랑으로 만나자.

글심는순서

1. 여는 시
2. 대동학교는 어떻게 진행되지요.
3. 반갑습니다. 새내기 여러분
4. 대동학교 역사
5. 좋은 영화 네편
6. 강연1-우리는 자주여성 민주남성: 구성에 생
7. 돌보기-쌈, 학원안정화 대책
8. 강연 2-우리는 민족복원 새세대: 안영민 생
9. 함께 불려요.

대동학교란 뭐게?

올해로 5기째 맞는 자주여성 민주남성 대동학교는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3일간의 학교입니다.

새내기들은 입학하고 난 후 많은 것을 새롭게 느끼고 고맙하게 될 것입니다.

여성문제라는 것도 새롭게 알아야 할 내용이죠. 바로 이전 것을 복현의 새내기들이 중심이 되어 선배님과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가 대동학교입니다.

또한 대학인이 된 새내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복현에 있는 동기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대동학교는 대충도 되지않고 휴강도 없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가는 학교가 아니라, 가고 싶어서 증거워서 내가 먼저 찾아가는 학교입니다.

3일간의 단기간 일정으로 여러분도 복현의 자주여성 민주남성 자격증을 획득하십시오.

대동학교는 이렇게 진행되지요

첫째날 (28 - 달날)

- 11:00 - 16:00 영화상영
- 16:00 - 16:30 단대별 길놀이
- 16:30 - 17:30 입학식
- 17:30 - 18:00 영상기획
- 18:00 - 19:30 강연1
- 19:30 - 조별 토론

둘째날 (29 - 불날)

- 11:00 - 16:00 영화상영
- 16:00 - 17:00 단대 시간
- 17:00 - 18:00 문화 공연
- 18:00 - 19:30 강연2
- 19:30 - 조별 토론

셋째날 (30 - 물날)

- 16:00 - 17:30 공동체 놀이
- 17:30 - 18:00 집단 길놀이
- 18:00 - 19:00 동창회장 선출
- 19:00 - 19:30 졸업식
- 19:30 - 대동 풀이



동반갑니다. 새내기여러분

1990년, '사랑 가득한 평등의 새땅으로' 라는 기치아래 처음으로 시작되어 새내기들과 재학생에게 올바른 여성관과 남성관을 인식케 하며, 앞으로의 대학생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던 '자주여성 민주남성 대동학교'가 어느덧 5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약 25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이들이 당당하게 자주적인 삶을 개척해가면서 복현곡에는 이런 말이 떠돌게 되었습니다.

"대동학교 졸업생치고 인간 안된 사람 없더라"

"먼족 복현에서 성공하려면 대동학교 꼭 나와야 된다더라"

이제 딱 대동학교에 첫발을 내디딘 새내기 여러분, 진심으로 세계적으로도 뒤떨어지지 않는 명문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환영하면서 더불어 축하의 말을 띄웁니다.

--이시대 진정한 대학인의 삶

--먼족에, 복현에 부끄럽지 않은 삶

--자주여성의 삶

--민주남성의 삶

'수입개방 막아내는 자주여성 민주남성 대동학교'가 평생동안 잊을 수 없는 3인을 통해 이룰 책임입니다.

7천의 어깨동무 제 9대 자주 총여학생회

회장 이상순(신문방송91)

부회장 한은정(영어영문 91)

동인동, 아직도 온풍기가 동여 어깨를 움츠리는 교실이지만 벗은 남자 몹이라도 능숙하게 진료하는 자신을 떠올리며 수업을 듣는다.

문득 여성문제를 놓고 싸웠던(?) 남자동기에게서 멋진 민주남성을 느꼈던 것을 떠올리며 피식 웃어본다.

대동학교에서 천대기는 새내기를 통해, 새내기는 천대기를 통해 새세대를 바꿔나가기를 기대해본다.

의대 여학생회장 소미진(의학90)

먼족의 생존권이 걸린 쌀수입개방 저지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 이제 막약 사회에 눈을 뜨려는 94 새내기들한테는 이번 대동학교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작지만 소중한 실천들을 다짐해보는 3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 대동학교,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 라는 올바른 남녀 관계에 대한 강연이 생각납니다. "껍질을 깨는 아픔이 없으면 올바른 인간으로 설 수 없다" 라는 말이 오랫동안 긴 여운을 남기며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조그마한 껍질 속으로 움츠러들어 그 속에서만 불안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달팽이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은 자기 자신만이 책임지고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진행되는 대동학교에서 스스로 찾아가십시오.

인문대 여학생회장 박은희(철학 91)

예비대학, 신입생 환영회, 모꼬지, 체육대회 등 정신없이 한달을 보냈죠.
대학강의, 기대만큼 실망도 크다는 새내기의 말. 대학 한달을 보내며 생긴 고
민들을 선배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풀어봅시다.

교양강의 1시간보다 더 재미있는 강연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신명나게
놓아봅시다.

대동학교 졸업하면 대학 4년 잘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농대 여학생회장 최이향(건설유92)

대학은 몽랑호입니다. 이 몽랑호는 끊임없이 흘러드는 샘물에 의해 제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샘물은 바쁜 새내기, 그대입니다. 학원의 용바른 상을 만들어갈 주인
으로 서야함을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자유와 용바른 평등으로 넘실거리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갈 젊은 주인!

대동학교에서 힘있고 진지한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대 여학생회장 한태희(지리91)

반갑습니다. 새내기 여러분.

모든 것이 새롭게 피어나는 따스한 봄날,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진행되는 3
일간의 일정동안 많이 많이 배워서 여러분도 새로운 모습으로 대학생활을 시작
했으면 합니다.

사범대 여학생회장 이인숙(역사교육 90)

3월 한달이 거의 다가고 있는 지금, 캠퍼스의 풍경은 피어날 푸르름의 준비
에 정신이 없습니다.

새내기 여러분들은 대학에서의 보물섬을 어느 정도 찾으셨습니까?

아직 못찾으셨다면 대동학교에서 마음껏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연대 여학생회장 최현숙(미생물 92)



대동학교 역사

제 1기 대동학교---1990년 3월 27일~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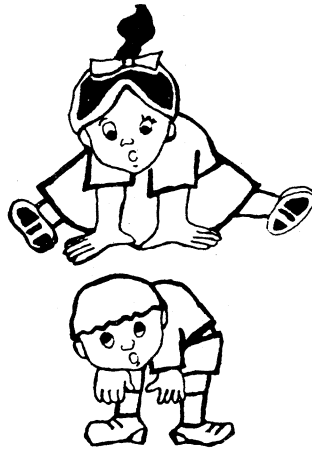
교장---이혜숙(제 5대 총여학생회장)

교가---가야 하네

주제---사랑 가득한 평등의 새땅으로

비디오상영, 초청강연, 마당극 등의 내용을 가지고 3일동안 진행된 제 1기 대동학교는 3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이들은 지금 사회에 나가 당당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1기 상징도안



제 2기 대동학교---1991년 4월 2~4일

교장---김후경(제 6대 총여학생회장)

교가---실천사항

주제---갓 피어난 내일을 위해

제 2기 대동학교는 분반토론, 운동회 등을 도입하면서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으로 300여명의 새내기와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복현을 책임지는 4학년으로 성장, 복현골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2기 상징도안



제 3기 대동학교---1992년 3월 30~4월 1일

교장---이경숙(제 7대 총여학생회장)

교가---높낮이 없는 세상

주제---높낮이 없는 우리들 세상

제 3기 대동학교는 총학생회 예비대학과 함께 새내기라면 당연히 참여하여 올바른 삶, 남녀가 함께 하는 삶을 얘기하는 유익한 공간이었고 500여명이 넘는 92학번이 참가하였다.

3기 상징도안



제 4기 대동학교---1993년 3월 29일~4월 1일

교장---이영주(제 8대 총여학생회장)

교가---우리들의 사랑은

주제---처음부터 다시, 그러나 새롭게

제 4기 대동학교는 단대시간을 마련하여 새내기들이 단대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700여명의 새내기들이 참가하여 올바른 인간관에 대해 토론하였다.

4기 상징도안



좋은 영화 내편

사라피나

1986년 남아공화국에서 발생한 '사라피나투옥사건'의 유혈항쟁을 그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다.

스타를 꿈꾸는 순수하고 천진한 소녀 사라피나는 춤과 노래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녀 곁에는 혁신적인 의식을 가진 한 소년이 있고, 그는 사라피나의 열정과 순수함을 좋아하지만 잠들어 있는 그녀의 존재의식을 깨우기 위해 노력한다.

어느날, 학교내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일어나고 백인 경찰들의 터무니 없는 의심에 분노한 학생들과 경찰 사이에 견잡을 수 없는 유혈항쟁이 일어나는데.....

생각해 봅시다

1. '인권'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2.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이 잘 보호되고 있을까요?
3. 북위에 대항하는 '폭력시위'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적박스

자상하고 위엄있고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했던 나치전범임을 안 변호사. '핏줄'의 정때문에 진실을 숨길 것인지, 아니면 양심적 인간으로서 진실을 말해야 될런지 갈등하기 시작한다.

생각해 봅시다

1. 그녀가 선택한 행동은 '패륜'일까요? 양심의 정규일까요?
2. 만약 당신이라면 진실의 이름으로 당신 아버지를 고발할 수 있을까요?
○

시터 오 브 조 이

인생의 의미를 잃고 깨달음과 구원을 찾아 인도로 온 미국인 청년의 사 맥스.

가뭄과 기아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캘커타로 온 하지리 팔 일가. 이 전혀 다른 인생의 십자가를 짊어진 두사람은 '기쁨의 도시'라는 이름의 슬럼가에서 운명적으로 만나 서로 다른 환경의 차이를 뛰어넘어 우정을 키워나간다.

뼈가 닳도록 일하면서도 가족에의 애정을 잃지 않는 인력거꾼, 결코 명랑함을 잃지 않는 아이들, 간호에 몸을 바치는 여자들, 재난이 끊이지 않는 캘커타에 끊임없이 엄습해오는 수해와 빈곤과 질병.

이속에서도 맥스는 자신의 영혼이 새롭게 탄생함을 느끼는데.....

생각해 봅시다

1. 당신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너도'로 의문파견을 가겠다고 하면 당신은 기쁘게 친구를 보내줄 수 있을까요?
2. 우리사회에도 빈민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계층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델마와 루이스

얌전한 가정주부인 델마와 착실한 식당종업원인 루이스는 둘만의 주말여행을 떠난다.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에 들뜨고 흥분한 델마가 강간당할 위기에 처하자 루이스는 델마를 강간하려는 남자에게 방아쇠를 당기고 만다.

이때부터 이들은 멕시코를 향해 '도피여행'을 하게 되고.....

생각해 봅시다

1. 여자가 강간당하는 때에는 그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2. 숨에 취한 여자나 몸가짐이 단정치 못한 여자들은 강간을 당해도 괜찮을까요?
3. 여자들만의 우정은 남자들간의 우정과 차이가 있을까요?

강연 1-우리는 자주여성 민주남성

얼마전에 방영되어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주말연속극 '아들과 딸'을 기억하십니까? 그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로 공감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말이죠.

새내기 여러분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우리 집과 똑같다고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날에는 저런 일도 있었구나라며 놀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한번쯤은 남자라서, 혹은 여자라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교육 속에서 나타나는 성차별과 대중매체에서 그리고 있는 여성상에 대해 알아보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봅시다.

1. 교육 속에서 나타나는 성차별

학교는 실제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성역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특히 교과서는 성역할의 사회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남녀 학생에 대한 가정과 기술의 일방적인 분리교육은 현재의 제도교육 속에서 성차별주의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 교육 개발원에서 펴낸 교사용 지도서를 보면 가정과목의 교육목표는 '원만한 인간관계' '행복한 가정생활' '자원활용' '가정생활에의 참여' '의식주생활 향상' '진로 탐색' '근로자와 직업존중' 등으로 되어 있는 반면, 기술과목에서는 '산업발전에 적응할 수 있는 기본자질 육성, 실업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여학생은 당연히 가정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서 가정운영의 책임자가 되어야 하고, 남학생은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전통적 역할 분담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교과과정임을 알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남녀의 전통적 역할 분담이 붕괴되고 있고, 가족의 기능, 생활 양식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진출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좀 더 진보적이고 밝은 미래를 제시하며 그 능력을 신장시켜야 하는 제도교육에서 전근대적인 남녀의 성적 분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것은 오히려 보수적인 인간 형성이라는 교육의 역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학교에서 추구하는 덕목과 가치도 다르다. 남학교의 경우 '하면 된다' '뜻을 세워 이겨내자' '진리탐구' '개척' '자기 도야' 등 진취적이고 건설적인 인간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여학교의 경우 '용서' '인내' '부덕' '정숙' '현모양처' 등의 흔히 '전통적인 여성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인간이 교육의 목표가 된다.

2. 대중매체가 그녀는 왜곡된 여성상

TV드라마를 보면 이러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즉 '여성은 가정에서, 남자는 사회에서'라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으며 전통적 고정 관념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V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사회활동보다는 애정문제나 가족문제에 더 집착한다.

남성이 개인적인 성취나 업적 등에 관심을 갖고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에 반해 여성은 관심의 대상이 거의 가정의 테두리 안에 있고 수동적이며 남성에게 복종하는 현모양처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얼마 전에 끝난 '마지막 승부'에서도 이런 예를 찾을 수 있다. 철준과 동민이 농구를 통해 성취욕을 불태우지만, 그들을 둘러싼 여자 주인공들은 오로지 애정문제에만 집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근래에 드라마나 광고에 등장하는 여성들을 보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고 많은 사람들 중 단연 돋보이는 여성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더이상 가정에만 얽매이는 여성으로는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변화이다. 하지만 그 부정성도 만만치 않다.

전문직 여성은 거의 성격이 건방지고 이기적이며 노처녀 아니면 과부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똑똑한 여성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고정시키고 전문직 기혼여성의 경우 골치 아픈 존재로서 호전적이며 가정적으로는 무능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 김가이가의 윤국장처럼.

결국 이것은 여성의 자기 실현이 행복한 가정, 또는 결혼 생활에 있음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 탐정, 비행기 설계사, 스텐디스, 언론사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극히 적음을 볼때 이는 여성들에게 능력만 있으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결국 여성취업차별이라는 사회적 모순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게다가 전문직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하여 그릇된 직업관을 심어주고 있다.

결국 현대사회는 여성들에게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면서도 사회적 성차별 관념이 남아있어 여성들을 갈등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변화도 사회전반적인 민주주의의 성장과 여성 스스로의 의식의 발전에 힘입은 것이니만큼, 또 그러한 변화가 있기까지 대학생들의 역할이 컸음을 상기하면서 이제까지의 왜곡된 여성관, 남성관을 버리고 올바른 인간관으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자.

1. 오렌지족으로 대표되는 한탕주의, 이기주의의 왜곡된 신세대의 어머니층 거부하고 자신의 생활에 당당하며 주인공을 잃지 않는 새내기

언제부터인가 신세대라는 말이 언론을 타면서 유행했다. 이와 더불어 오렌지족, 야타족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말은 사치, 퇴폐향락, 한탕주의 등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신세대인 우리들은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자신의 삶에 당당할 줄 알고 모든 일에 열심이며 대학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임무에 충실하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제 왜곡된 신세대가 아니라 민족복원을 책임지고 나갈 새세대로서 부끄럽지 않는 대학생이 되자.

2. 성을 상품화시키는 성폭력문화 추방의 의지모야 당당히 일어나는 새내기 신입생활영회다. 동문회다 하여 술집이나 식당에 간 새내기들은 벽에 걸려있는 술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여자의 나체사진을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는 대학주변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금 경대주변은 완전히 성폭력(성을 매개로 행해지는 모든 종류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여성에 대한 상품화는 곧 남성을 상품화, 비인간화시키는 것이고 이는 전 인류가 비인간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자신의 생활근거지는 스스로 지켜나가겠다는 주인의식으로 민족복원에서부터 건강한 대학문화를 만들어가자.

3. 자신의 적극성과 당당함을 개인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과호 확대하는 새내기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는 의식이 높아지면서 많은 새내기들이 일찍부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관심있는 일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적극성이 개인적인 것으로 그쳐버린다면 우리 사회는 매우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될 것이다.

나 자신뿐 아니라 전체를 볼 줄 아는 새내기가 되자.

4. 조국의 현실을 바로보고 당당히 비판하고 요구할 줄 아는 새내기

지금 우리나라는 쌀과 교육시장 개방이라는 위기에 처해있다. 쌀과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우리나라는 민족의 자주권을 뿌리째 외세에 내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제화니 개방화니 하며 국민의 의식을 오도하고 있다.

진정한 대학인이라면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올바르게 보고 잘못된 점을 비판하며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들보기 - 학원안정화 대책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할 만큼 우리 조선 민족의 교육에 대한 열의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결코 뒤지지 않지않 훌륭한 교육을 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부끄러움 정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학원안정화대책에 대해서 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규정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 전반의 문제로 받아들여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원 안정화 대책 법안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학원 안정화 대책 움직임은 6.3 학대사건 이틀 뒤인 6월 5일 전국 총학장회의를 갖고 '대학의 위기상황'을 선포하고, 장학금 지급 조건 강화, 학사제적 몇 경고조치 강화, 학생회 간부 성적 제한, 학사행정에 대한 학생참여 배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원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91년 9월 3일 교육부에서 '학내 풍토 쇄신을 위한 권장 사항'이라는 공문을 각 대학에 전달하였고 92년 1학기에 거의 모든 대학이 학칙개정을 완료함으로써 학원안정화 대책은 대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사생아에 의해 92년부터는 시대에 여행하는 제적제도를 다시 부활시켜 내고 경북대에서는 "재학기간중 연속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경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부분은 학생들의 반발이 커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며 작년 딸 인문대를 중심으로 한 저녁시간 학생회실과 라 모인방 사용통제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적조치가 교육의 질개선, 면학분위기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될 지라도 그 속에 숨은 의도는 학생자치활동을 약화시켜 건강한 비판의식을 가진 자주적 인간이 아닌 체제 순응적인 무기력한 지식인을 만들어 정권의 안정화를 이루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지금은 3회 연속 경고자에 대한 제적조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이후에는 평일 과행사 금지, 신청학점 중 2/3이상을 취득하지 못했을때 제적, 75점이하 학사경고 등 규제의 강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는 수업과 공부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며 결국은 과, 학회, 동아리, 동문회조차 자유로이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은 교육재정의 확보, 교과과정의 개편, 교육부대 시설의 확충, 교수님의 혁신, 학생들의 학구열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들보기---수입개방 반대는 제 2의 민족 독립 운동입니다.

쌀은 수천년을 이어온 한민족의 주권이요, 혼입니다. 만일 쌀을 비롯한 농축산물 시장이 개방된다면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에 밀려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약한 우리 농축산물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농업은 몰락하게 되고 농민은 농촌을 떠나 도시로 집중하게 됨으로써 큰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민족농업은 말살될 것입니다.

햄버거, 핫도그, 피자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우리들-우리 쌀의 중요성을 잃고 입맛따라 정신마저 미국식으로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민족임을 잊지 맙시다.

쌀은 바로 우리 생존의 근원인 것입니다.

UR-자주적 외교노선은 견지하지 못한 한국의 일방적 패배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협상이 최종 합의된 후 가트 본부에 제출된 이행계획서를 통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농산물 보호를 위해 각종 보호장치를 확보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들 나라는 수입량이 많아질 경우 드니 협정문이 규정한 관세율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는가 하면 농업 보조금 감축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쇠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종량세를 물려 최대한 자국의 농업을 보호키로 한 것입니다. 이런 보호책은 양자 협상을 통해 은밀히 확보한 것으로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전면개방을 약속한 한국의 일방적 패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력에 의한 수입개방은 절대 안됩니다.

미국은 냉전체제 이후 군수 산업의 위축으로 인한 경제의 침체와 재정적자, 무역적자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은 가트의 회원국이 아니면서도 UR협상에서 약소국, 특히 한국에 대해 일방적 희생을 강요했으며, 이후 WTO라는 미명 하에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 질서를 재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북에 대해서도 있지도 않은 핵을 빌미로 한 지속적인 핵압력을 가해 북한을 고립, 말살하려는 책동을 부리고 있으며 남한에 있어서는 팀스피리트 훈련, 패트리엇 미사일, 항공모함의 배치, 재고무기 판매 등으로 지속적인 긴장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한반도 긴장고조로 자국의 군수산업을 부활시키려는 미국의 군사, 경제 침략적 속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재협상-국회 비준 거부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부는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트는 UR협정에 참가한 회원국 117개국의 만장일치가 있어야만 발효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비준을 늦추거나 거부하면 회원국 모두에게 협정이 발효되지 않습니다.

민자당 김범명의원의 4명이 국회비준을 거부하겠다는 서약서를 전농 앞으로 제출했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국회비준 거부를 결정했습니다.

4월 정기 국회에서 국회비준을 거부한다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이속에서 주권국가로서 자주적이고 민족의 이익을 생각하는 외교노선을 견지한다면 수입개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강연2-우리는 민족복헌 세시대

시대와 역사속의 대학, 대학인 그리고 청년의 삶

- 불꽃같은 청춘을 준비할 민족복헌의 새내기 벗들에게 드립니다.

다섯번째로 맞이하는 총여학생회 대동학교에서 올바른 대학생활을 주제로 강연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순간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87학번 선배이니까 대학생활도 오래해봤고(남들은 다 졸업하고 사회생활하고 있을 나이에 아직도 대학에 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 이럴 때에는 써 먹을 때가 있더군요) 이제 막 대학의 문에 발을 들여놓은 새내기들에게 이야기해줄 것도 많지 않겠느냐는 계기에 과연 해줄 말이 뭐가 있겠는가, 80년대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에 대학을 다닌 선배와 이른바 90년대 문민정부라는 변화된 시대와 조건속에 대학에 들어선 후배들 사이에 과연 공감하고 토론할 수 있는 대학의 문화와 정서, 사상이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가슴을 가득채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3년여에 이르는 대학생활의 공백기간동안 신세대니 뭐니 하면서 확산되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적 풍요로움과 정신적 공허함이 가져다준 대학공동체의 파괴등을 간접적으로 듣고 보면서 지금의 대학 중심세대-90년대 학번들에 대한 막연한 거리감도 가지고 있었기에 더욱 강연 요청이 부담으로 와닿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가 새롭게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실로 4년만에 대학생활을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학한지 이제 한달 남짓되었죠) 접해본 후배들의 삶의 모습, 대학 생활은 막연히 지내온 우리세대(80년대 학번)와의 정서적, 문화적 차이가 극히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현상일 뿐,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든지 항상 느껴온 청년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 도전적이고 패기넘친 자세, 시대와 사회속에서의 대학과 대학인의 역할에 대한 자각 등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변한 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문제를 풀어 나가고자 방법일 뿐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자아 실현에 대한 요구와 사회적 삶과 개인적 삶을 통일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는 청년학생들의 공지를 가지기에 손색이 없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밝은 조명과 넓고 탁트인 공간을 가진 커피점이 무척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모습 역시 커피점의 분위기 만큼 밝고 탁트인 모습입니다. 불과 5-6년 전과는 비교가 안되는 모습이지요. 물론 이중에는 대학가에 확산되는 소비적인 문화의 단편을 지적하는 문제의식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이것이 현재의 대학생들의 의식과 사고를 표현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회전반적으로 억눌린 분위기, 독재의 칼날이 언제 어디서 스스로의 목을 겨누고 있을 지 모르는 시대적 상황은 필연적으로 어둡고 음침한 다방의 구석진 자리로 대

학생을 내몰았으며 자신이 드러날까 쉬쉬하면서 독재에 대한 저항을 준비하였기에 어둡고 칸막이 친 커피점을 우리 선배들은 선호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학의 새세대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자기 주장을 펼쳐내고자 하는 사고와 분위기를 선호하기에 밝고 탁트인 커피점을 애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는 시대적 상황과 분위기의 차이가 외양과 형식의 차이를 강제하는 단편적인 예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가의 술문화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예전에는 쓴 소주에 식어빠진 찌개국물과 시국을 안주 삼아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마셔야만 직성이 풀렸지만 이것은 몸에도 나쁜 술이 좋아서 하는 알콜중독자들의 행동이라기 보다는 가슴을 도리는 우리 사회의 모순에 찬 현실과 이를 타개해 나가고자 하는 자신의 행동과의 괴리를 술을 통해서가 아니면 풀 수 없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의 반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술문화는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어울린다는 취지가 강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의 기호에 맞게 또 주량에 맞게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 | 저면 대학의 분위기와 변화된 문화적 상황이라는 부분은 그것이 외양과 형식의 변화-시대적 상황의 반영으로서 나타나는 외양과 형식의 변화라는 점에서는 그리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학과 대학인이 가져야 할 역할과 임무라는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변화라면 우리는 진지하고도 심각하게 현실을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느낀 것은 대학과 대학인의 변화라는 것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어쩌면 이제까지 저는 지금의 대학과 대학인의 모습이 이러한 본질의 변화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강하게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이기 보다는 시대가 발전하고 사회가 확장되면서 나타나는 대학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존재방식과 생활방식의 변화라는 점이었습니다.

ㄱ | 두가 길었죠. 하지만 서두를 길게 잡게 된 것은 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올바른 대학생활과 관련한 강의를 요청받고 순간 당혹스러웠던 것은 과연 무슨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 정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변하고 있고 대학이 몸담고 있는 사회현실도 변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지난 시대의 낡고 고루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선배가 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하는 고민도 들었지만 찬찬히 살펴 본 현실의 모습속에서 내린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개척할 동량을 키워내는 대학이 시대와 사회, 그리고 역사속에서 영원하듯이 이속에서 규정받는 대학과 대학인의 임무와 역할 역시 영원해야 한다'는 제 나름의 결론은 이제 딱 대학문에 들어선 94학번 새내기 벚들에게 이야기할 것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ㄱ 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제가 새내기 시절, 대학의 문을 먼저 들어선 선배들에게서 때로는 교정의 잔디밭에 둘러앉아, 때로는 쓴소주 한잔 들이키며, 때로는 최루탄 터지는 거리, 진압경찰을 앞에 두고 대화를 통해서 라기 보다는 마음과 마음을 통하여 듣고 느꼈던 이야기입니다.

대학, 학문, 정의, 진리, 사회, 역사, 그리고 대학생인 나...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대학과 대학인이 풀고자 했던 문제, 가슴으로 부딪히고 가슴으로 풀고자 했던 문제. 대학이 존재하고 대학생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자신을 준비해 나가는 당당한 모습이 존재하는 한 결코 변할 수 없으며 항상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이켜 보고 자신의 청년시절 4년을 줏대있게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좌표가 될 문제.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며 풀어 나가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해 답을 찾아 나가는 4년의 세월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대학생 모두가 가슴으로 받아 안고 열정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를 한 마디로 시대의 아픔에 함께하고 역사와 민중앞에 당당한 대학, 대학인으로서 스스로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대학이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그리고 대학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대학생의 임무와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대체적으로 이와 유사한 물음과 답을 아마도 여러분들은 개강초 교수님들로 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대다수의 새내기들은 대학은 진리탐구의 장이요 학문의 전당이라는 식의 답과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우선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여야 한다는 답을 할 것입니다.(교수님들의 이야기와 비슷하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왔고 배워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전적으로 타당하고도 올바른 답변입니다. 대학은 학문하는 곳이며 대학생들은 이러한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존재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불변의 원칙입니다. 물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내가 대학에 들어온 이유는 졸업이후에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 일 뿐(혹은 좋은 데 시집, 장가가기 위해서 일 뿐) 학문 따위에는 별 관심이 없다. 요즘 같은 세상에 대학 졸업장 없이는 어디가도 대접받지 못하는 데 일단 대학은 나오고 봐야 하는 데가 아닌가.’

새내기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암암리에 갖고 있을 지도 모르겠군요. 물론 이런 식의 근시안적이고 비주체적인 생각(남들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의 생각)은 빨리 떨쳐 버리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순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바로 사회적 관념과 왜곡된 대학상의 반영이며 올바른 그릇됨에 대한 판단력을 유보당한 채 지내왔던 지난날의 모습들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주체적으로 고민하면서 깨뜨려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마저 거부한다면 진짜 문제가 있다 할 수 있겠지요.

진리탐구의 장, 학문의 전당이라 불리우는 대학에서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본연의 임무에 맞게 대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는 불변의 원칙은 여기에서부터 한발짝 더 앞으로 나가는 순간 참으로 큰 고민을 안겨다 줍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올바른 학문의 내용이며 학문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와 관점은 어떠한가?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과연 몇명의 대학생들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답을 찾아내지 못하고서는 결코 진리도 학문도 자기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질 때 만이 대학과 대학생은 스스로의 임무와 역할을 진정으로 올바르게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시절 우리 선배들의 삶은 위의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대학교재를 통해서 혹은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왜곡된 학문의 내용을 주입하고 허구적인 대학생의 임무를 강변하는 잘못된 교육풍토와 사회적으로 이를 강요하는 정권의 통치행위에 맞서 벌여 나갔던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저항의식과 투철한 투쟁의지가 바로 학문하는 사람의 본성이자 시대와 역사속에서 민중들과 더불어 함께 할 대학의 본연의 임무임을 확립해 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들어 또다시 진부한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더군요.

‘이제 지난 군사독재 시절과 같은 억압적 상황도 사라지고 문민정부도 들어섰으니 학생들은 강의실로 되돌아가 학업에 전념하자’ 는 주장입니다. 과연 지금의 사회정치현실이 정말로 민주적이고 개혁적으로 바뀌었는가에 대한 문제는 논의하더라도 학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학문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관점과 자세에 대한 고민없이 책만 열심히 보면 학문 잘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불 필요없고 수업들을 필요없다는 이야기는 물론 아닙니다) 이러한 주장은 학문이란 것을 아주 사변적인 것으로 내몰 뿐더러 학문하는 것을 한낱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대학 현실은 뿌리없는 학문, 사상없는 학문, 지식으로서의 학문만 무성할 뿐 진정 올바른 학문은 어떠한가 하는가에 대한 답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내기들도 한달 남짓한 대학생활을 통해서 느껴왔지만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공부가 고등학교와는 무엇이 다른지 도대체 왜 우리는 지금 학업을 하고 있는지 아무런 답변도 얻지 못한 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실망감속에 확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ㄱ 령다면 과연 학문은 무엇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학문을 자신의 존재근거로 삼고 있는 대학생들은 어떻게 참다운 학문을 할 것인가? 어떠한 관점과 자세를 이를 풀어 나갈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과 토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어렴풋이나마 답을 찾아 보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강의의 주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속에서 여러분들이 대학, 학문, 정의, 진리, 사회, 역사, 그리고 대학생인 나라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고민을 모아낼 수 있다면 제가 하고자 했던 강의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강의의 주제와 내용은 단지 제가 정리하여 표현한다는 것 뿐이지 강사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4년이라는 청춘시절을 불꽃처럼 살아갔던 선배들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모은 것이며 이속에서 내려진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ㄴ 새로운 삶에 대한 준비, 새로운 도약을 향한 과정은 어쩌면 어렵고 힘든 일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얻은 기쁨은 바로 참다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모쪼록 '당당하되 교만하지 않으며 겸손하되 비굴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바탕으로 시대와 사회가 가져다 주는 자신의 역할에 걸맞게 민족과 민중앞에 당당한 새내기 벗들의 주체적 삶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가 달라는 것은
더욱 귀중한 것입니다

함께 불러요

대동학교 교가

우리들의 사랑은 보랏빛 꿈경이 아니군
 희미한 불빛 카페의 속삭임도 아니예요
 우리들의 청춘은 혼자서 꽃피는게 아니군
 더불어서 꽃꽂이하게 피어나는 코스모스
 지치고 쓰러져도 다시 피어나는 꽃
 눈물보다 더 빨리 모질게 피어나는 꽃
 자주적인 여학생회 언제나 함께 하는 친구처럼
 여성해방 그날까지 변치않을 사랑이군
 인간해방 그날까지 변치않을 사랑이군

대동령길 걷고라도 생수입은 막겠나
 변라개역 할실학선 큰소리커다만
 이제 와서 안고 보나 능인뭇승견-있구나
 신한국 의 신능성 바로이것이있구나
 생수입은 어쩔수없다 생강라시나요
 안먹으면 애국이라 막학-건가요
 국민투표 신시권 국힘비준 거-부르
 민족농업 지켜내자 농업개발전대만돼
 생은우리국권인세

바위처럼

유인혁 글,곡

바위 처 럼 살아 가 보 자 - 모진
 비 바람이 몰아 친 대 도 - 어떤
 유혹 의 손길 예도 흔들림 없 는 바위
 처 럼 살 자 무 나 - 바람
 예 흔들리는 건 - 뿌리
 가 앞 은 갈 대일 뿐 - 대지
 예 깊 이 - 박힌 저 바위 는 굳세
 계 도 서 있으 리 - 우리
 모두 절 망 예 굴 하지 않 고 시련
 숙 예 자 신 을 깨 우 처가 매 마침
 내 을 - 예 방 세 상 주춧 돌 이 될 바위
 처 럼 살 자 무 나

자주여성은..

- 남성에게 의존하거나 보호받으려 하지 않는다.
- 여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실수를 용서받으려 하지 않는다.
- 모든 생활의 구석구석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임한다.
- 외모보다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 노력한다.
- 정치나 사회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여성다움으로 생각지 않는다.

민주남성은..

- 여성을 대할때 외모로 사람됨을 판단하지 않는다.
- 성의 상품화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며 거기서 쾌락을 구하지 않는다.
- 여성을 멸시하고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비민주적 태도를 남성다움으로 생각지 않는다.
- 순결관념은 인간관계의 성실성이란 차원에서 남녀모두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